조선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록음우거진 공원속의 도시 평양

위대한 년대에 영예를 드린다

1950－1953

주체110
(2021) 8

(781)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자 연

관 광

력 사

60

도서관

68

74

80

92

편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승 룡

표 지: 전승절의 축포 사진: 조선중앙통신
뒤표지: 박연폭포 사진: 박창복

위대한 전승 7·27 만세!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특별소식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빛나게 계승될것이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0(2021)년 7월 27일

존경하는 전쟁로병동지들!

우리모두가 항상 공경하고 귀감으로 모시는 혁명의 로선배인 동지들과 또다시 자리를 함께 하고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승절을 경축하게 되니 기쁨과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세세년년 긍지높이, 자랑스럽게 추억할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제일자산입니다.

더우기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산 증견자인 로병동지들을 모시고 자주 뵈옵는것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무상의 행운으로, 영광으로 됩니다.

나는 3년간의 가렬처절한 포화속에서 기적의 전승신화를 안아오고 자기의 시대를 영웅적으로 빛내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정정한 모습으로 전승절행사에 참석하여주신 존경하는 로병동지들과 온 나라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인민군렬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견인불발의 힘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7.27을 맞는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발전행로에서 혁명의 2세인 전승세대가 쌓아올린 공적은 거대한 력사적 봉우리로 우뚝 솟아 빛나고있습니다.

강대하고 아름다운 이 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은 동지들이 대표하는 위대한 세대의 공적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수천만 인민의 자유로운 삶과 참다운 우리의 제도, 수려한 산천과 옥야천리, 귀중한 자연부원은 조국의 한치한치땅을 피로써 지킨 무수한 용사들의 위훈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1950년대의 영용한 조국방위자들이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였기에 오늘에 이르는 여러 세대의 후손들이 노예의 수난을 모르고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누릴수 있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국가무력침범자들을 꺾고 전승이라는 경이적인 미증유의 사변을 이루어낸 전승세대의 위대한 공적이 있었기에 조국의 운명과 미래는 구원될수 있었으며 우리 후대들은 영웅조선, 영웅인민이라는 위대한 명성과 영예를 물려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우리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진 전승세대의 공적중에서 제일 귀중하고 값진것은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창조한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낳은 투쟁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됩니다.

전승세대가 발휘한 위대한 영웅정신을 되새겨볼 때 세인을 경탄케 하고 심장을 격동시키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수령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최후의 결사전에 주저없이 나서고 사지판에서도 최고사령부를 바라보며 불사신의 용맹을 떨친 인민군전사들의 강의한 정신력은 세상을 놀래우는 승전신화들을 낳았습니다.

늘 생각하는바이지만 로병동지들을 뵈올 때마다 조국해방전쟁의 간고함과 처절함, 원쑤격멸의 치렬한 백병전이 그대로 생생히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전화의 용사들처럼 싸우고있는가를 재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의 제일 엄청난 도전과 위험을 맞받아 불가항력의 강용한 정신적힘을 분출시킨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저절로 머리가 숙어집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후손들의 삶을 위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웠지만 우리의 전승세대는 언제한번 피흘린 대가를 바란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가시고 페허가 된 나라를 복구해야 할 막중한 일감들을 또다시 어깨우에 기꺼이 걸머진것이 전승세대였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용사들도, 후방에서 굴함없이 싸운 사람들도 불행과 고통을 딛고 먼저 간 전우들의 부탁대로, 그들의 몫까지 열배, 스무배로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는것이 응당한 도리이고 의리이며 본분이라고 여기였습니다.

단순히 복구만 할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빈터우에 자주강국건설의 첫삽을 박은 전승세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였습니다.

허리띠를 풀새없이 간고분투하며 세월을 주름잡은 영예로운 건설자들에 의하여 영웅조선이 천리마조선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고 부국강병의 지름길인 경제국방병진의 력사적과제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년대를 이어 본보기로 삼고있는 당중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혁명적대고조로 보위하는 훌륭한 투쟁전통과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고상한 집단주의기풍, 공산주의적인간관계도 이 위대한 혁명세대가 창조한것입니다.

전승세대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재더미우에서도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과 정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 생활을 건설하고 잘 살수 있다는 주체의 철리가 빛나는 현실로 확증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은 포연탄우를 헤치며 피흘려 싸우던 전화의 그때처럼 살고있는가를 항상 자각하며 변함없는 복무의 길을 걸어왔으며 새세대들도 강직하고 견결하게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모두가 더없이 존경하여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빛나게 계승될것이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0(2021)년 7월 27일

마지 않고 감사해마지 않는 전승세대의 고결한 정신세계입니다.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을 이어받은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몇차례의 전쟁과 맞먹는 사회주의수호전의 간고한 시련을 극복하고 혁명앞에 나선 거창한 대업들을 승리적으로 이룩해올수 있었습니다.

정녕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사수하고 대를 두고 이어갈 불멸의 영웅정신을 마련해주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입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에게는 위대한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특별한 긍지와 자부가 있습니다.

전승세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사명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위대한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선렬들이 지켜내고 일떠세운 이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하고 끝없이 번영하게 하는것입니다.

성스러운 이 력사적사명과 본분을 똑똑히 자각한 세대는 절대로 쇠퇴하지도 와해되지도 않으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기마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 막아서고 아름찬 과업이 나설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지금보다 더 엄청난 도전과 과업을 감당해낸 혁명의 로세대, 전승세대를 생각하군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난과 애로는 전쟁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승세대가 가장 큰 국난에 직면하여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고 가장 큰 승리와 영예를 안아온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 훌륭한 전통을 이어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보다 큰 새 승리로 바꿀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려정에 지금보다 더한 역경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며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계승하여 내세운 투쟁목표들을 향해 줄기차게 돌진할것입니다.

전화의 용사들이 아까운 생과 바꾼 이 땅, 로병동지들이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이 강토를 반드시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부흥강국으로 꾸려나갈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새세대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게 하자고 합니다.

오직 자기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결정을 목숨바쳐 받든 견결한 혁명정신, 자기 힘과 승리를 확신하고 조국앞에 닥친 생사존망의 위기를 맞받아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결사의 희생정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복구와 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간 불굴의 투쟁정신, 어려움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며 사회주의 새 생활을 꾸린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이 오늘의 투쟁과 생활속에 살아 높뛰게 하겠습니다.

애국충정의 훌륭한 교과서인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혁혁한 전승기와 투쟁기들을 누구나 잊지 않도록 하고 전시가요들과 창조와 건설의 노래들이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항상 울리도록 하며 당정책관철의 실천투쟁속에서 새 기적과 위훈들이 계속 창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병동지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새로운 력동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온 나라는 앙양한 기세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영웅적인 전투정신과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있습니다.

수천수만의 새세대 청년들도 전승세대의 훌륭한 정신과 기풍을 이어 당이 부르는 전선들에 용약 달려나가고있습니다.

전승세대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은 굳건하며 우리 국가,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양양합니다.

로병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돐에 즈음하여 우리의 귀중한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분들께서 부디 건강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길이 빛날것이며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것입니다.

위대한 전승 7.27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빛나는 계승의 력사를 창조한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전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빛나는 계승의 력사를 창조한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세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웅적위훈은 후대들의 애국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분발승화시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9일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을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로 후손들앞에 긍지높이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영웅정신을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주신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발전행로에 빛나는 전승세대의 값높은 위훈은 우리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고결한 후대관, 혁명관을 지닌 혁명선배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위대한 귀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화의 영웅들이 소중히 그려본 부흥강국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분투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확약하시면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부디 건강장수하기를 바라시는 진정을 담아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돐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들에 우리 군대와 어깨겯고 싸운 지원군장병들의 참다운 전투적우의와 무비의 희생정신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력사적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불멸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적위력과 혁명적투쟁정신을 더욱 제고하고 당중앙의 중대한 군사전략전술사상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부합한 군건설방향과 방침들을 군정간부들에게 재침투, 체득시키기 위하여 전군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조직하였다.

건군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강습회는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강철의 정치사상강군으로,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만들며 이 영예로운 과업수행에서 군정간부들이 핵심골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각성분발시키고 고무격려하며 전면적으로 재무장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

강습회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사단, 려단, 련대 군사지휘관, 정치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주체적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또 하나의 뚜렷한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7월 24일에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습회가 전군의 군정간부들을 우리 당의 혁명무장력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준비시키는 간부혁명화의 중요한 시작점

으로, 부대들의 작전전투능력과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차수 권영진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부대강화의 경험과 교훈들이 반영된 토론들을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강습회 2일회의에서는 1일회의에 이어 토론들이 계속되였다.

회의는 당중앙위원회앞에 자신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총화받고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부여된 무거운 책무를 다하려는 군정간부들의 사상적각오와 열의가 비등되는 속에 진행되였다.

강습회에서는 당의 군사정책을 충직하게 받들고 전투력강화와 군기확립, 군인생활개선에서 앞장서 나가고있는 모범적인 부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군건설로선과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현시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대한 혁명적인 투쟁과업들과 강습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탁월한 군사사상과 강군건설리론이 집대성되고 군정간부들과 군인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은 조선인민군을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불패의 전투대오로,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밝혀준 귀중한 혁명적문헌으로 된다.

강습회 3일회의에서는 전화의 근위부대 지휘관들이 보여준 숭고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며 부대들의 군사정치사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체득시키기 위한 강습이 진행되였다.

강습에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행정에 창조된 불굴의 혁명정신과 완강한 투쟁기풍을 오늘의 군사정치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이 언급되고 우수한 부대들의 경험이 소개되였다.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성하고 절대복종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들 군정간부들의 드높은 열의가 세차게 끓어번지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4일회의로 7월 27일 페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페강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당의 군건설중요사상과 이번 강습회에서 강조된 과업과 방도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헌신분투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페강을 선언하시였다.

주체의 군건설사에 특기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는 전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전승의 날을 뜻깊게 경축

조선인민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쳐흘렀다.

경건한 마음으로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27일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이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령도사가 깃들어있는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할 로병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이 있었다.

혁명사적지들을 찾은 군중들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20세기에 특기할 군사적 기적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각지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수도 평양에서는 제7차 전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이며 훌륭한 혁명선배들인 대회참가자들을 시민들은 따뜻이 환대하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가렬한 전장마다에서 수령만세, 조국만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간 전우들의 불멸의 위훈을 회억하였다.

수도의 극장들에서는 음악무용종합공연들과 음악회, 종합교예공연 등이 진행되였다.

곳곳에서 예술단과 예술선전대, 예술선동대들이 다채로운 야외공연무대를 펼쳐 명절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도예술단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이 경축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승리의 찬가들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이어 주체조선의 승리의 7.27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로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끓어번지게 하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가지였다.

27일 각지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였다.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서 황홀한 불장식들이 펼쳐져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 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 관람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을 위한 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이 7월 29일 삼지연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국무위원회연주단 예술인들은 국가방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서 조선로동당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장병들과 함께 헌신분투하고있는 전군군정간부강습회 참가자들을 고무해줄데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특별히 준비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의 정이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를 떨쳐온 자랑찬 혁명의 년대들을 진감하며 조선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준 노래들이 올랐다.

나라와 인민을 사수하는 영예로운 복무의 길에서 다진 맹세 영원히 변치 말라는 당과 혁명의 간곡한 당부가 종목마다에 울려퍼진 공연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무장으로 결사옹위하며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에 무한히 충실할 군정간부들의 열정과 투지를 배가해주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

1945. 8. 15.

해마다 조국해방의 날(8. 15.)을 맞이할 때면 조선인민은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더욱 뜨겁게 되새겨보군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온 민족이 수난을 겪고있던 지난 세기 전반기 포악무도한 침략자들과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시고 민족해방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그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를 창건하시였다.

국가적인 후방도 없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와의 대결은 그야말로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이였다.

집요하게 달려드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전투와 가슴아픈 희생, 모진 추위와 굶주림…

걸음걸음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줄기차게 전진하였다.

세계제패를 꿈꾸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하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에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정확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항일무장대오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단합을 이룩하시였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함께 국내외에 조직되여 활동하던 모든 항쟁력량들이 떨쳐나 곳곳에서 일제침략군을 소멸하고 적통치기관들을 점거하였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으며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해방되였다.

삼천리강토가 커다란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가운데 온 민족이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그이의 조국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조국인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평양과 그 주변은 물론 사리원과 해주,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등지에서 수십만의 군중이 모여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 환호성은 민족적숙원을 이룩하신 그이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분출이였고 그이를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설 각오와 맹세의 분출이였다.

오늘 **김일성**경기장의 가까이에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시고 평양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립된 개선문이 솟아있다.

글 강수정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개 선 문

조선인민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의 해방위업을 이룩하시고 평양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주체71(1982)년 4월 14일 개선문을 건립하였다.

사진 리진혁

1925

1945

부주제부각상 《김일성장군 만세!》

부주제부각상 《새 조국건설에로!》

사회주의애국청년의 기개를 떨치며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로 계속 탄원

청년들이 5개년계획수행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게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터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열정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부단한 전진을 요구하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전국각지의 청년들 3 700여명이 지난 5월까지 년간, 상반년 계획을 완수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 등의 청년탄부들이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결속하였다.

경공업부문의 많은 청년들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년간, 상반년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지난 4월 첫 년간계획완수자가 나온것을 계기로 청년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더욱 힘차게 벌어져 5월 중순까지 여러 명의 처녀들이 년간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회천제사공장, 신의주방직공장, 구성피복공장을 비롯한 생산단위들에서 청년혁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각지 청년들이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 달려나가 청춘의 희망과 포부를 실현해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청년들

평안남도의 1 000여명의 청년들에 이어 평양시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라선시, 개성시를 비롯한 전국도처의 수많은 근로청년들도 사회주의농촌과 금속, 석탄, 채취공업부문과 중요건설장들로 진출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청춘의 자서전을 빛나게 수놓아갈 리상을 안고 나서자란 고향도시를 떠나 각지의 중요건설장들과 협동농장, 산골마을의 학교, 분교, 진료소 등으로 찾아가는 청년들의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함경북도인민병원의 청년의료일군들이 뜻밖의 사고로 사경에 처한 환자에게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주었다.

이와 같은 소행들은 평양시제2인민병원, 사리원시제1인민병원 등의 청년들속에서도 꽃펴났다.

청년동맹 제10차대회이후의 두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근 2만명의 청년들속에서 고상한 미풍이 발휘되였다.

그중에는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어 학생을 구원한 청년도 있고 건강상리유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의 집을 찾아가 글을 배워주는 처녀교양원도 있다.

사진 리명국, 안철룡, 황정혁
글 김선경

록음우거진 공원속의 도시 평양

평양을 찾는 사람마다 도시의 록화환경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평양의 수림화, 원림화수준은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에 뚜렷이 느낄수 있다.

모란봉과 대성산, 룡악산 그리고 대동강과 보통강반에 펼쳐진 수려한 풍치도 그러하지만 도처에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들의 화려한 모습은 더욱 이채롭다.

시안의 거리마다 높이 자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고 도로들을 따라 아름답게 단장된 록지들이 훌륭한 경관을 펼치고있다.

어디를 보나 공원속에 들어앉은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는 평양이다.

사진 김성철, 공유일, 손희연
글 박병훈

오염이 없고 깨끗한
록색형의 세계로

For Pollution-free, Clean and Green World

록색형도시로

지구의 생태환경보호는 오늘날 인간의 생존 및 발전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탐욕과 리기심으로부터 산생된 무차별적인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의 파괴는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현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인간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더는 주저하지 말고 모두가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자기자신과 후대들을 위해, 아름답고 록색화된 세계를 꾸리기 위해 누구나 관심하고 노력할 때에만 자연은 자기의 거대한 재부를 아낌없이 인류에게 안겨주게 될것이다.

세포지구의 대규모축산기지

강원도의 세포군과 평강군, 이천군을 포괄하는, 일명 세포등판으로 불리우는 넓은 지역에 오늘 조선에서 손꼽히는 축산기지가 자리잡고있다.

예로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눈과 비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은 매우 불리한 농사조건으로 하여 10년전까지도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처에 잡관목과 새초들만 무성했었다.

그러던 주체101(2012)년말부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포등판개발을 결심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실현할 열의 안고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곳으로 모여왔다.

그들은 3개 군안의 수만개소에서 시료들을 채취하고 구체적인 토양분석을 진행한데 맞게 합리적인 토지개량방법을 적용하여 황량하고 척박하던 산과 들판을 차례차례 전변시켜나갔다.

우량품종들이 늘어난다

지역적조건과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집짐승들이 선정된데 따라 그 생산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사료작물들의 종도 선정되여 대규모의 풀판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

개발자들은 풀판조성과 함께 훌륭한 방풍림을 만들기 위해 굳은 땅과 암반들을 까내면서 수많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었다.

계곡들에 다리들이 건너갔고 산골짜기와 릉선들을 따라 방목도로들이 뻗어갔다.

집짐승우리들과 수의방역시설, 제품가공시설 등 모든 건설대상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부합되게 일떠섰다.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 문화회관을 비롯한 수많은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하여 불과 5년도 못되는 기간에 대규모의 축산기지가 일떠서 주체106(2017)년 10월에 준공되였다.

5만여정보에 달하는 대초원이 눈뿌리 아득히 펼쳐지고 수백정보의 방풍림과 1만 2 600여정보의 풀판보호림, 2 000여㎞의 방목도로와 배수로, 저류지 등이 형성되였다.

지금 축산물생산을 위한 과학적인 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은을 내기 위한 사업들이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다.

세포지구축산경리위원회에서는 종합생산지령실을 통하여 풀판비배관리와 병해충예보, 집짐승사양관리 및 수의방역체계를 실시간적으로 감시 및 지휘하면서 경영활동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10여개의 연구실들이 갖추어져있는 세포축산학연구소는 세포지구의 특성에 맞게 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

수의방역소에서는 자기 고장에 흔한 약초로 집짐승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수십가지의 수의약품들을 자체로 개발 및 생산도입하여 집짐승들의 폐사률을 계속 낮추고있다.

애국소목장을 비롯한 여러 목장들에서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우고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들을 받아들여 그 마리수를 해마다 늘여나가고있다.

목장들마다에 농산과 양어,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도 세워져 더 밝은 전망을 확신케 하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활발히 운영되여 세포지구 축산업발전의 오늘과 래일을 떠메고나갈 기술자, 기능공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하여 아득히 펼쳐진 세포등판의 어디서나 젖소와 양, 염소떼 등이 구름처럼 흐르는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세포지구에서 생산된 고기와 젖들은 훌륭한 가공품들로 전환되여 각지의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여지고있다.

교육자양성의 원종장

평양교원대학에서는 소학교교원들과 유치원교양원들을 양성하고있다.

50여년의 연혁사를 가지고있는 평양교원대학은 3년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새 위치를 잡고 일떠서면서부터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훌륭히 실현된 교육자양성기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주체57(1968)년 9월의 설립 당시 20명이였던 대학의 교원수는 지금 백수십명을 헤아리고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30대의 실력가들이 교수진영의 중진을 이루고있다.

이 기간에 연구사력량도 60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오늘 교육 및 생활환경이 완벽하게 꾸려진 대학에서는 시적인 규모에서 선발된 천수백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초등교육부문의 특성으로부터 학생들의 거의 모두가 녀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소학교교원 및 유치원교양원자격을 받기 위한 3년, 2년간의 교육을 받는다.

그들중 우수한 졸업생들은 박사원과정까지 거쳐 전문가자격을 갖추게 된다.

유치원 및 소학교년령의 어린이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은 매우 책임적인 사업이며 그만큼 이 부문 교원들의 능력제고는 후대들의 전망 나아가서 국가의 전망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기에 오늘 대학에서는 세계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면서 교육의 수준을 계속 높이고있다.

교육내용을 실용화, 세분화하여 6개의 학과를 새로 내오고 50여개의 새 과목들을 개척하였으며 30여건의 새로운 교수방법들도 내놓았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최근년간 종전보다 실천실기교육의 비중을 더 높이는 데로 교육내용을 지향시켜나가고있다. 모든 교실들이 전공실천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로 꾸려진 조건에서 학생들이 가상교수정황과 실지교수정황에서의 실기수업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질을 련마하도록 하고있다.

대학의 연구집단에서 개발한 수많은 교육프로그람들이 교수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과외학습시간에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능력있는 교육자들로 준비해가고있다.

그와 함께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집필한 소학교학생용참고도서들과 어린이지능계발도서들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일치한 호평을 모으고있다.

초등교육부문에 대한 정연한 학술일원화체계가 확립된 평양교원대학은 전국의 교원대학들을 망라하는 학술연구 및 보급의 핵심단위이기도 하다.

오늘 착상이 새롭고 실효가 높은 대학의 새 교수방법들은 각 도, 시들의 교원대학들에 널리 보급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방은심, 황정혁
글 강수정

회령의 특산물들

Specialties of Hoeryong

회령의 백살구로
가공한 제품들의 일부

Products made from white apricot of Hoeryong

견고하고 가벼우며
색이 특이한
오지제품들

Hard, light, and
uniquely-coloured
earthenware

회령 백살구

조선의 북변인 함경북도 회령시는 예로부터 경치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회령3미라고 하면 국내는 물론 주변나라들에까지 널리 소문났다.

회령3미중에는 행미, 토미가 속하는데 이것은 이 지방의 특산인 회령백살구와 회령백토를 이르는 말이다.

회령백살구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살구나무품종으로서 원대는 거무스름한 재빛이 나는 붉은 밤색이며 묵은 가지는 진한 붉은 밤색에 누런 얼룩점이 있고 윤기가 돌며 햇가지는 누런빛이 나는 보라색이다.

해마다 4월 하순경에 흰색의 꽃들이 피여나며 7월 상순과 중순경에 열매를 맺는다.

열매 한알당 질량은 60g정도이다.

과일껍질은 희누른색이며 해빛 조임면은 연붉은색을 띤다. 과일살은 연한 누른색이며 물기와 단맛이 많고 신맛이 적다.

씨의 핵은 크고 넙적한 둥근 모양이며 약재로 쓰인다.

오늘 시의 과일생산량에서 회령백살구는 90%이상을 차지한다.

시안의 근로자들은 낮은 산들과 골짜기들을 따라 수백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였을뿐아니라 나무들에 대한 영양관리와 비배관리를 짜고들고 오랜 나무들의 그루바꿈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시안의 거리와 마을주변, 농촌들의 길가에도 이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봄이면 도처에서 하얀 꽃풍경을, 여름이면 흐뭇한 수확풍경을 펼쳐놓고있다.

시에서는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열매들을 허실함이 없이 가공하여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당과류와 음료, 주류, 의약품의 원료로 적극 리용하고있다.

회령시 창효리에 있는 회령백살구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다.

회령 오지

회령백토 역시 오랜 세월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봉건왕조백자기가 절묘한 아름다움을 이루는것이 바로 이 회령백토의 덕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부터 널리 알려진 회령오지는 실용적가치로 보나 공예학적특징으로 보나 남다르고 훌륭한 측면들이 많다.

일반오지의 색갈은 흔히 누른 밤색, 붉은 밤색, 푸른 밤색, 검은 밤색이 태반이지만 회령오지는 흰색 계통의 시원한 색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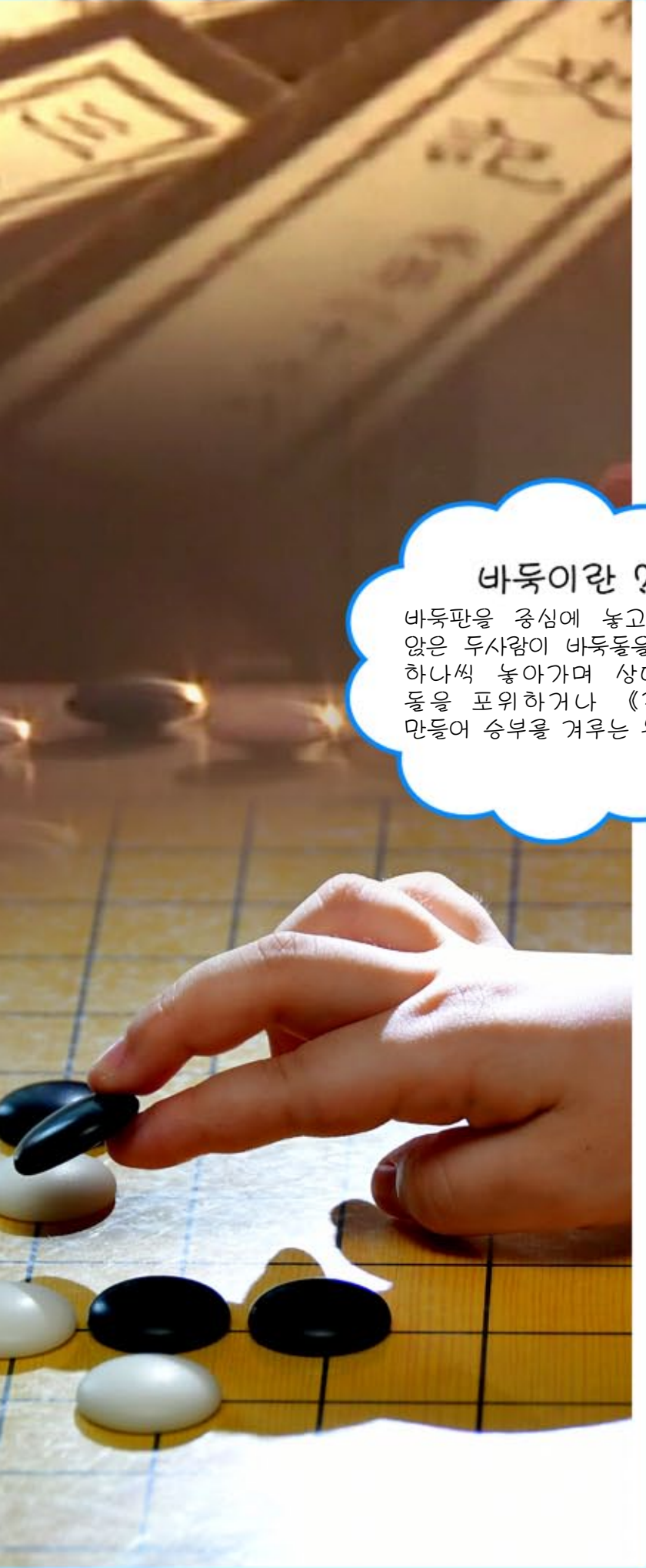
회령오지에 음식이나 음료를 담으면 오래도록 변질도 안된다고 한다.

하여 지난날 중국의 동북지방에서도 두만강을 건너와 회령백토와 오지그릇들을 많이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조선의 왕궁안에서는 회령에서 생산되는 오지그릇을 많이 사용하였고 함경도일대는 물론 전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자식들의 결혼 지참품으로 회령오지를 빠놓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회령오지공장에서는 전통적인 자기제조기술에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여러가지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다그치고있다.

회령을 대표하는 오지제품들은 전국각지에서 그 수요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리광성, 리성익
글 박병훈

동심에 새겨지는 민족의 얼

바둑이란 ?
바둑판을 중심에 놓고 마주 앉은 두사람이 바둑돌을 판에 하나씩 놓아가며 상대방의 돌을 포위하거나 《집》을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놀이.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은 주체105(2016)년 2월에 개원하였다.

대동강반의 미래과학자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유치원에는 십여개의 교양실들과 함께 운동놀이실, 물놀이장, 지능놀이실, 의무실 등이 갖추어져있다.

유치원에 자식을 맡긴 부모들이 이곳의 훌륭한 환경과 조건에 앞서 먼저 자랑하는것은 교양원들의 높은 자질이다.

부모들도 스쳐버리는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장난에서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이곳 교양원들이다.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그들은 항상 어린이들의 성격과 심리, 소질 등을 깊이 관찰하면서 합리적인 교수방법들을 적용하고 새로운 교편물들을 창안제작하여 교수교양에 리용하고있다.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연과 생활 등을 느끼게 하는것이 이곳 교양원들의 교육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좋은 바둑은 이곳 교양원들이 큰 관심을 돌리는 항목이다.

어려서부터 민족정통무도인 태권도의 기초동작들을 익혀 나가고있는 어린이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게 민속놀이이면서도 높은 급의 지능경기종목인 바둑의 유래를 비롯한 옛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바둑돌을 손에 쥐는 방법, 바둑판우에 돌을 놓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둑의 묘리와 수읽기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알려주면서 바둑의 세계에로 이끈다.

이 과정에 어린이들은 리해력과 집중력은 물론 자제력과 투지 등 좋은 품성들도 갖추게 되였다.

2년전부터 이곳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 육체적능력에 알맞는 태권도의 기초동작들을 골라 음악에 맞추어 수행할수 있게 어린이태권도를 만들어 보급하여오고있다.

태권도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체력도 증진되였으며 례절도 밝아지게 되였다.

오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게 키우려는 평천구역 미래유치원 교양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리철진
글 김선경

《은방울》손풍금

Unbangul Accordions

120-15/5형
45/(58)120 4/6 15+M+1c+4+5M cass

120-15/7형
45/120 4/5 15+M+7+5M cass

120-15/0형
(64)106/120 4/4 15+0+7M cass

96-7/4형
(76)37/96 3/4 7+4+2M

100-0/1형
(55)92/(52)100 2/4 0+1c

조선주단

조선주단회사
KOREA CARPET COMPANY

평양시 서성구역에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진 조선주단회사가 위치하고있다.

회사의 주단제품들은 그 질이 우수하고 색과 문양 또한 고상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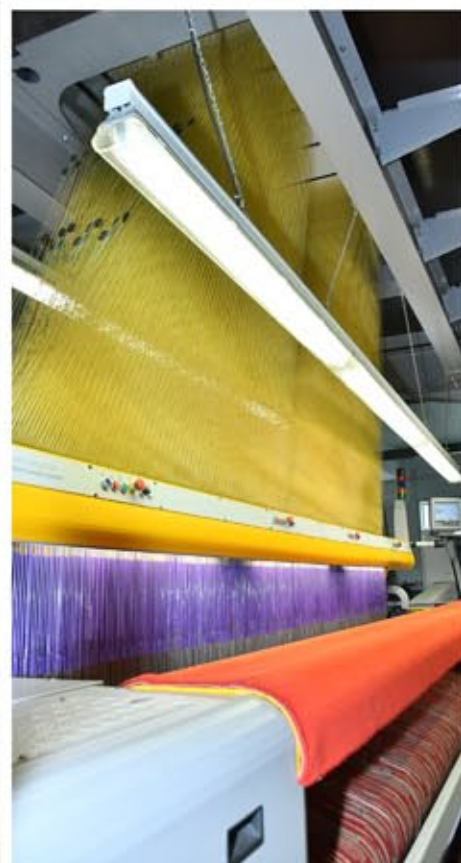
오늘 회사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정서적기호에 맞게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는것을 기업활동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생산활동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자체의 기술력량이 튼튼히 꾸려진데 토대하여 방적, 염색, 직조, 완성 등 모든 생산공정들의 설비들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조선주단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양과 색갈로 친근감을 더해준다.

그 과정에 직기에 의한 주단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계가 도입되였다.

회사에서는 구매자들속에서 계속 인기를 모으고있는 손주단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계속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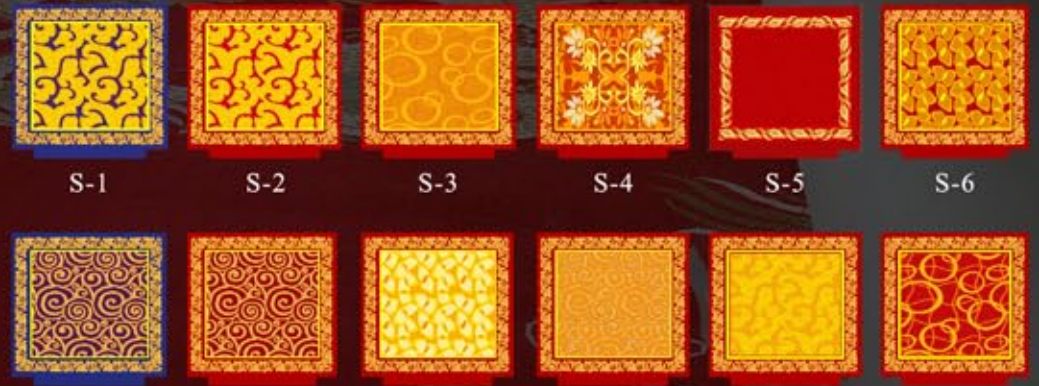
평양미술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을 졸업한 유능한 도안창작가 및 기술자들의 실력이 그 성과적수행을 담보하고있다.

회사에서 생산한 주단제품들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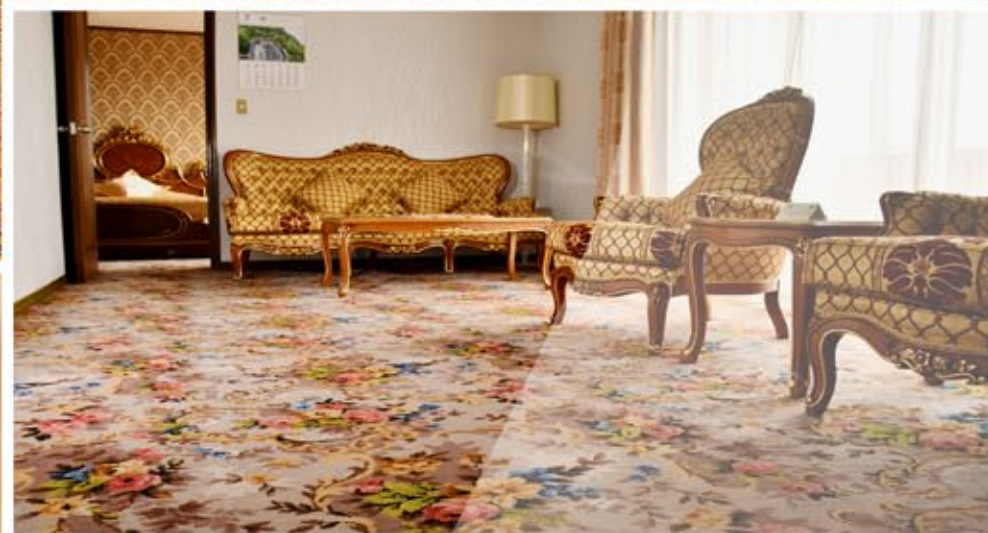
손주단

CX-02 2-1-1-0806 2-1-1-0910 2-1-1-0507 2-1-1-1012

2-1-1-1005 3-2-1-0808 2-2-1-1302 2-6-1-1204 2-5-1-0907

공예주단

기계주단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3 S-15

조선주단회사

KOREA CARPET COMPANY

그리고 수십년의 경험을 가진 고급기능공들을 비롯한 전세대의 기능과 묘리를 물려받으며 보다 훌륭한 수공예품을 내놓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는 생산자들의 적극성이 제품의 질제고에로 이어지고있다.

조선의 명산들인 금강산과 묘향산 등을 형상한 풍경주단들과 조선범, 사슴, 목란꽃 등을 형상한 주단들을 비롯하여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벽걸이손주단제품들은 독특한 무늬와 색갈, 형상된 내용의 예술성 등으로 하여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회사의 모든 제품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양털, 명주와 같이 조선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천연원료들을 재료로 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조선의 명산

칠보산

칠보산지구는 주체103(2014)년에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다.

웅장하면서도 기묘하고 특이한 자연환경을 이루고있는 칠보산은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이며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함경북도 명천군과 화대군, 명간군의 넓은 지역과 어랑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칠보산의 면적은 수백㎢에 달한다.

칠보산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높고낮은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골짜기들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기암절벽과 바위섬들 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있다.

외칠보 장수봉의 총각바위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바다경치를 계절별로 이채롭게 펼쳐보이는 명승지 칠보산은 지역별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구역으로 나뉘여있다.

칠보산은 식물상도 매우 다양하다.

북부고산지대와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포함한 1 300여종의 식물이 분포되여있으며 그중에는 산삼과 삼지구엽초, 오미자를 비롯한 약용식물도 적지 않다.

특히 칠보산에서 많이 나는 송이버섯은 특이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어 버섯가운데서도 손꼽힌다.

내칠보의 사공바위

내칠보의 피아노바위

해칠보의 조개살이터

이곳에는 곰, 노루, 너구리, 오소리를 비롯하여 80여종의 산짐승류와 수리부엉이, 티티새, 찌르레기, 꾀꼴새 등 수많은 조류들이 있으며 해칠보의 보촌앞바다에는 명태를 비롯한 물고기들과 게, 문어, 성게, 조개, 미역 등 여러가지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칠보산지구는 주체103(2014)년에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다.

칠보산은 명승지로서뿐아니라 조선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하다.

오늘 칠보산은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지고있다.

사진 김성철, 공유일, 김혁철
글 최광호

내칠보의 겨울

칠보산 송이버섯

Songi Mushroom in Mt Chilbo

송이버섯에는 조단백질 13.18%, 조지방 2.09%, 조섬유 8.3%, 회분 10.4%, 당질로서 환원당 2%, 트레할로즈 0.6%, 수용성다당류 2.05%가 들어있다.

에르고스테롤을 비롯한 비타민성분들이 대단히 많다.

송이버섯은 맛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에 좋은 영향을 준다.

송이버섯구이

Roasted Songi Mushroom

평양골프장
PYONGYANG GOLF COURSE

푸른 잔디 우에서

- 평양골프장을 찾아서 -

흥미를 자아내는 골프의 세계

골프는 먼 옛날 양몰이군들이 끝이 굽은 막대기로 돌을 튕겨 그 거리의 정확성을 겨루는 놀이를 한것이 골프의 유래라는 견해도 있고 또 약 600여년전에 네데를란드에서 겨울에 빙상호케이와 비슷한 놀이를 바다기슭 모래판에서 한것이 골프의 유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 골프는 세계 각국에서 널리 하고있다.

수도 평양에서 조선서해의 해안도시 남포로 뻗어간 청년영웅도로를 따라 얼마간 차를 달리면 평양, 남포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인 태성호를 가까이하게 된다.

자연흐름식관개체계인 개천-태성호물길의 혜택으로 하여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이는 이 호수의 기슭을 따라 면적이 근 200정보에 달하는 평양골프장이 펼쳐져있다.

잔디밭의 면적만도 46정보나 되는 이곳에는 연장길이가 6 777yd인 18개의 홀이 꾸려져있는데 가장 짧은 홀은 130yd이고 가장 긴 홀은 580y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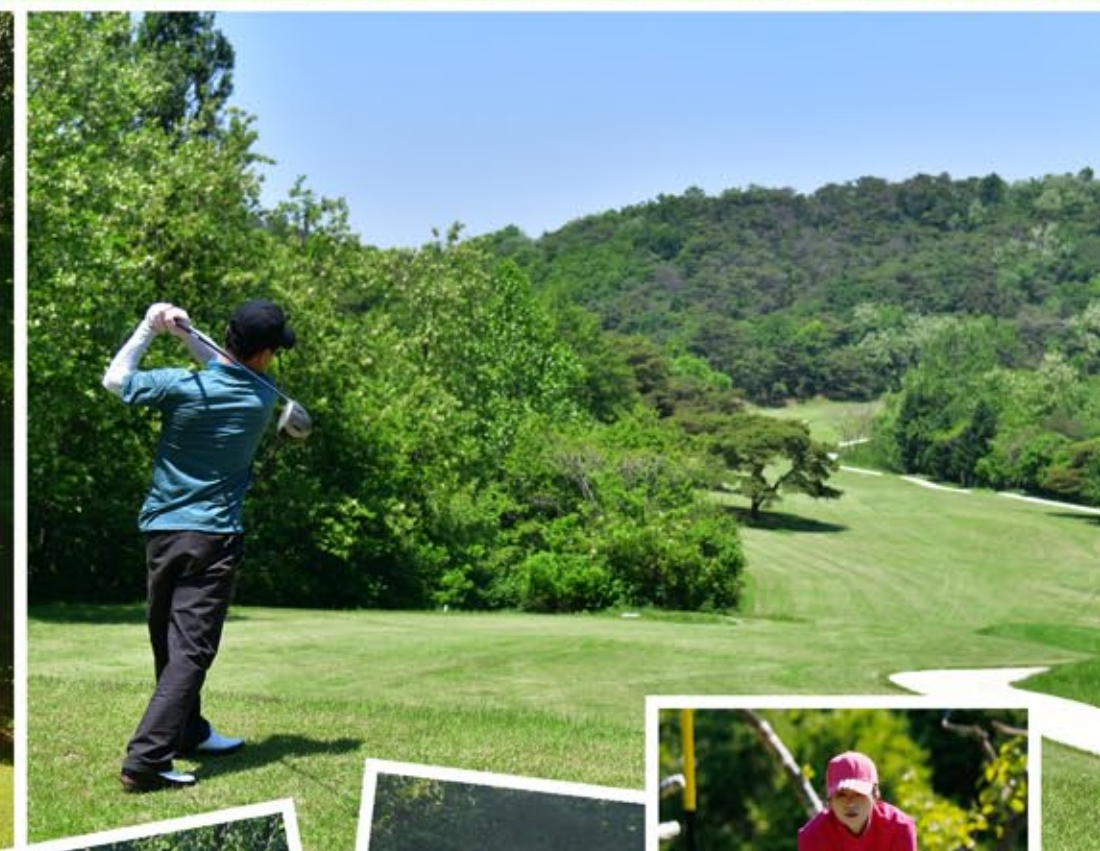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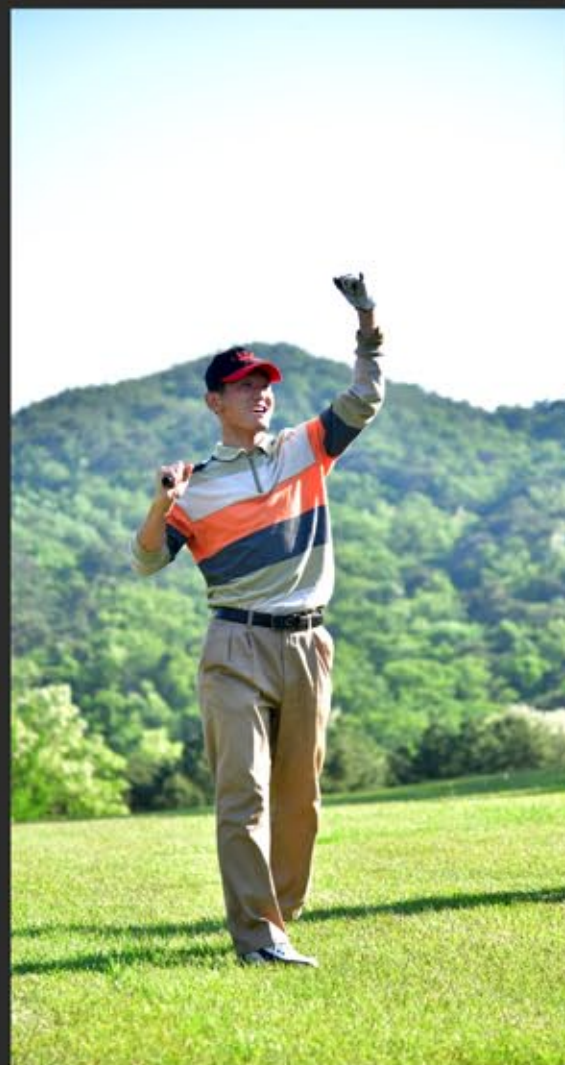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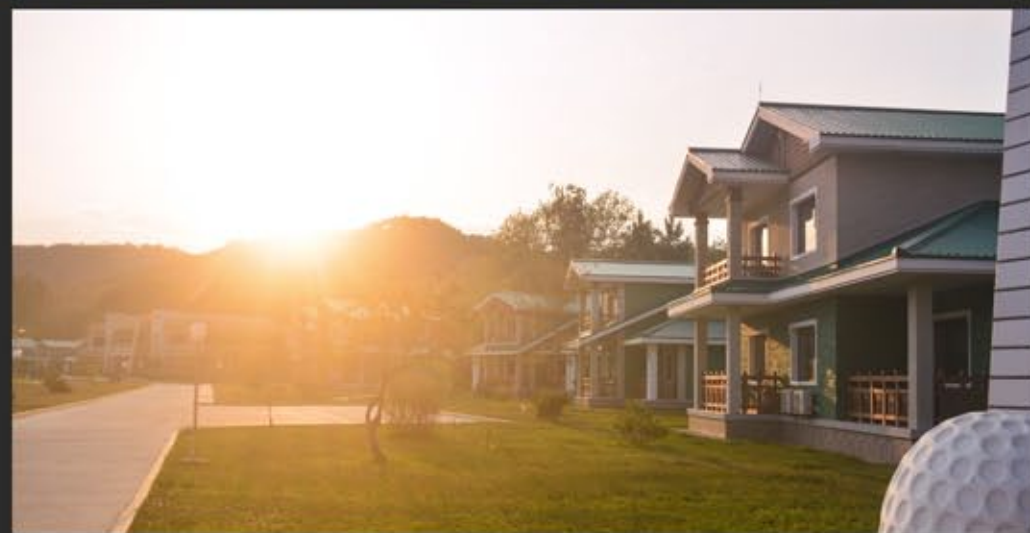
평양 골프장에서

국제경기규칙에 부합되는 골프경기장의 하루수용능력은 200명이다.

골프장주변의 송림이 우거진 나지막한 산기슭과 호수가에는 뽀트장, 낚시터, 가족숙소, 일반숙소를 비롯하여 골프선수들과 애호가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시설들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2년전에는 물놀이장과 당구장, 운동실, 식사실들을 갖춘 종합봉사건물이 새로 일떠서 손님들을 만족시키고있다.

평양골프장

PYONGYANG GOLF COURSE

수려한 산들과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언제나 맑고 신선한 공기가 차넘치는 태성호반은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좋은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양골프장 봉사자들의 친절한 봉사와 훌륭한 자연환경속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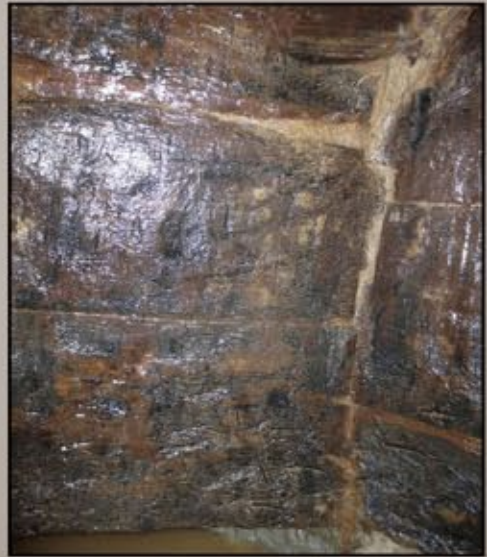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고구려문화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유물들 발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학술연구집단이 1세기-5세기초까지의 고구려(B.C. 277년-A.D. 668년)의 력사를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까지 근 20년동안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의 고구려시기 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여온 연구집단에 의하여 고구려가 1세기초부터 평양의 림흥동일대를 중요한 지역적 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그와 함께 당시 고구려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유적유물들이 공개되였다.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의 내부와 4각방틀, 발굴된 유물들

림흥동고구려우물2호의 내부와 8각방틀, 발굴된 유물들

낸곳: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